

하나님의 소원 욕 42:7-11

왜 하나님께서 욕에게 두배의 축복을 주셨을까?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다. 믿는 사람이 증인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욕은 출발부터 지난번 말씀을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였다. 동방은 이스라엘의 동쪽이니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한다. 가나안 땅과는 거리가 멀다. 그 지역의 대표적인 신앙인이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는데, 시대적인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그 지역 오만대 소문이 다 났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왜 욕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냐고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었고, 두배의 축복을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동방지역의 사람들이 놀랐을 것이다. 죽음을 알았는데 두배로 살아났다. 이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욕의 희생제사는 진짜 답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엿볼수 있는 본문이 오늘 10절이다.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욕의 곤경을 돌이키셨다고 하였다. 그냥 갑절로 준 것이 아니라 욕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그 때에 곤경을 돌이키셨다는 것이다. 목표는 두배의 축복이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또 소문도 굉장히 커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다. 대개 이렇게 말하면 마음에 눌리거나 힘들거나 그런 생각 들 수도 있다. 언약을 누리면 영적인 힘이 있어서 이런 것이 힘들지 않다. 오히려 축복으로 여겨진다. 응답의 조건 1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누구든지 응답이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고 계속 필요하다. 인생을 정복하는 만큼 세상을 정복한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이것을 누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과 가슴이 통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무조건 큰 인생 살게된다. 자기 개인 인생 정복은 말할 것도 없고, 문제가 무엇이 오든 문제가 안된다. 세상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다. 오늘은 이것을 예를 들어 볼려고 한다.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기도 응답의 결정적 요건인가 하는 것이다. 근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크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과 통해야 한다. 나 한사람의 십일조로 온 교회가 쓰고 남는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게 욕심인가? 그것이 사명인가, 욕심인가? 하나님이 슬퍼할 일인가, 기뻐할 일인가? 하나님 미국 교회를 살리게 해주세요. 욕심인가? 교만인가? 우리는 반드시 남이 끝까지 가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세계 곳곳에 지교회를 세우고 복음 운동 하도록 우리 교회가 작품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허공을 치는 소리인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소리인가? 아니면 정상인가? 누구든지 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되는 사람만 되야 되는가? 어찌 되어야 하는가?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 답을 나누고 싶다는 것이다. 성경에 써 놨다. 아주 포인트가 있다.

1.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고 아무도 못 막는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대로 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세상의 모든 축복이 있다. 인간의 역사가 이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인간은 힘 없다. 죽음 앞에서는 하나도 힘이 없다. 그 경험 해 봤는가? 나는 서른살 때 이것이 왔었다. 점심 먹으로 집에 가는데, 길가의 풀을 하나 봤다. 거기에 꽃이 피어 있었다. 그것을 보고 한 삼십분서 있었다. 나는 죽으면 끝인데, 이거는 죽고 나면 내년 봄에 또 올라오겠지? 너희는 정말 좋겠다 했다. 나는 죽는다고 난리인데, 그러면 끝인데, 거기서 나오는 답이 그리스도였던 것이다. 답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세상에 펼치는 것이 하나님이 소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에는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을 심어 놓은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막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때로는 아주 냉정하게 선을 거서 그 선에서 제외시키기도 한다.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말년에 이상해지는 사람도 성경에 있다. 그것은 절대 계획이다. 아무도 못 막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따라가는 자는 앞뒤를 돌아볼 것도 없고 무조건 따라가면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응답으로 누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자신을 정복하는 자가 된다. 인생이 작품이 된다. 그리고 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의 권세이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뱀, 사단의 머리 깨게 되

어 있고 모든 문을 열게 되어 있다. 인생이 절대 중단되는 일이 없다. 계속 문이 열린다. 문제 없다는 것이 아니다. 상관없이 계속 문이 열린다. 세상에 무슨 일이 나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 없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반드시 정복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다. 누가 이것을 막겠는가? 나쁜 일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일이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살릴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 내게 복음이 없으면 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가슴이 통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가 있다.

2.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시는 일에 흐름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니까 반드시 나타난다. 그리고 시대마다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흐름이 형성 된다. 내용은 같다. 방향도 같고. 포인트가 다르다. 그리고 시간은 피조물이라서 흐르게 되어 있다. 그러면 흔적이 남게 되어 있다. 이것이 흐름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흐름을 형성해 가는데에는 몇가지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특징이라는 것이다. 첫째는 항상 당신의 종을 먼저 선택하신다. 그리고 그 시대를 두고 한 종을 선택한 후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 종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 종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때로는 불려가기도 하였다. 그 종은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다. 자기는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모른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따라가느냐 할 수 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것이다.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오게 된다. 따라가야 한다는 결정이 나온다. 그리고 그 종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몇가지 성경의 예를 보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시대적인 복음 운동을 했다. 최강대국이다. 지금으로 보면 미국이나 같다.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이 선택받은줄 몰랐다. 그래서 미워써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다. 보디발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 아내를 그를 유혹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꿈대로 되었다. 막아도 안된다는 것이다. 모세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히 먼저 요셉처럼 말씀을 받았다. 애굽에서 백성들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라. 사명을 넘어 언약이 되었다. 언약과 사명은 어떤 차이가 있나? 사명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언약은 내가 잡아야 할 것이다. 잡으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게 두 개의 차이이다. 사명인데 언약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기 된다. 그 사명이 곧 언약이기 때문에 사명안에는 뱀의 머리를 깨는 권세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방해했다. 애굽의 왕이 죽이려고 하였다. 애굽의 군대도 그렇고 홍해도 그렇고 광야의 많은 일들이 그랬다. 그러나 필요없다. 그대로 받은 말씀 그대로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 땅 끝까지, 부활메시지 4개, 237, 치유, 서밋, 잡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오늘 잡기 바란다. 하나님 내게 주세요, 내가 잡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다. 그러면 인생 정복한다. 문제 정복한다. 놀리는 일 없다. 인생 중단 안된다. 계속 간다. 문제 일어난다. 상관 없다. 계속 간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다. 문제가 깡그리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된 것이다. 문제가 역전되어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흥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흥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다. 엄마가 광주리에 담아서 갈대숲 속에 놓았을 때 애굽의 공주가 와서 볼 때, 미리암을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모세가 공주에게 가게 했다. 모세가 동생이라 다 안다. 모세가 아내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구스여자, 이디오피아 여자랑 결혼했다. 그래서 미리암이 그럴수 있냐고 했다.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모세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다. 기도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과 직통하던 사람이어서. 이스라엘에 얼마든지 사람이 있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미리암 때문에 모세의 리더십이 깨지면 안되는 것이었다. 모세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세의 권위가 깨지면 말씀의 권위가 깨지기 때문에 미리암의 손을 들을수 없었다. 다윗의 경우에는 더 극명하다. 다윗도 한 시대에 하나님

을 위해 선택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게 만드셨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던진 돌을 하나님이 잡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다윗은 시편의 반정도를 기록한 사람이다. 아주 영적이고 귀중한 성경 구절이 많고,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고백의 글도 있다. 예수님오기 천년 전의 사람인데도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남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다. 그리고 남편 우리아는 요락을 이용해서 죽게 만들었다. 범죄이다. 그런데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인데, 이는 똑똑한 사람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략가였다. 아히도벨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게 무슨 왕이냐는 것이다. 남의 아내를 빼앗는 사람이 왕이냐는 것이다. 너무나 충성된 그 남편은 또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으니, 아히도벨이 복수를 하려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붙어서 반란을 일으켰다. 결과는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 정리하고 자살했다. 자기의 뜻과 다르게 다른 사람이 선택되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 내 시대는 끝났다. 압살롬이 미워서 자살한 것이 아니다. 똑똑한 사람이었다. 압살롬은 머리 털이 아름다웠는데, 도망가다가 머리털이 나무에 걸렸을 때 모압이 죽었다. 다윗을 저주하던 시므오도 칼에 죽었다. 아버가일의 남편 나발도 죽게 되었다. 아버가일은 울지도 않고 그 다음날 와서 다윗의 부인이 되었다. 그녀는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다. 결국 다윗을 대적한 사람은 다 죽었다. 바울 주위에도 안타까운 사람이 있었다.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초대교회에 최초로 자기 재산을 팔아 바쳤다. 그리고 안디옥교회에 처음으로 파송한 제자가 바나바이다. 그러면 대표적인 제자였다는 것이다. 거기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 보고 바울을 데리고 왔다. 자기가 해도 되는데 바울을 데려와서 같이 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 성경에 보면 일년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제자가 마가의 일 때문에 사도 바울과 완전히 헤어졌다. 1년간 안디옥교회의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봤을 것이다. 그의 메시지나 자세나 성경적 지식이나 기도나 다 봤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차 전도여행을 둘이서 같이 다녔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다 봤을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다. 메시지가 다르고 언약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게 되어 있다. 거기다가 성경적 지식은 바나바는 바울을 선생으로 모셔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바울 아래에 들어가지 않았다. 만일 그가 바울 아래 들어가서 이인자 역할을 했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바울의 제자를 통해 사역을 확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울 밑으로 안 들어갔다. 만일 들어갔다면 지금 바나바의 기록보다 더 큰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록은 없다. 만일 그가 영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감지했다면 바울이 바나바도 불렀을 것이다. 마가에 대해서는 바뀐 것을 보고 내가 필요하다면서 불렀다. 그러나 바나바는 없었다. 바나바도 전도자로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많이 안 일어났을 것이다. 만일 일어났었다면 누가 반드시 사도행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록은 없다. 그런데 누가 혹 바울만 기록했다고 하자. 그런데 바나바의 현장에서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면, 교회를 통해서 전달이 되지 않았겠는가? 자기 제자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다면 교회를 통해서 기록이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록은 없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바나바는 가다가 말았다. 처음에 바나바는 바울을 능가하는 제자였다. 기록도 보면 그렇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바나바 다음이 바울이었다. 1차 선교여행 뒤부터 바울이 나타난다. 안타깝지만 바나바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이다. 끝까지 가지 못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다. 그것이 갈렙이다. 그는 여호수아와 버금가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했을때, 그는 여호수아 밑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물론 그는 이방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을 것이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했을 것이다. 애덤 족속이라는 말도 있다. 그래서 대적을 안했다고 볼수도 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여호수아를 대적했다면 앞에서 언급된 사람보다 더 형편없이 살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흐름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여호수아 밑에서 살았고 그 결정에 순종했던 것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현실적으로 보려면 좀 어려운 것도 있

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흐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한다. 아니면 내가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흐름의 중심에 선택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 아니라면 선택받은 사람을 따라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의 또 하나의 결론이다. 시대마다 사람을 선택했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다. 말씀 없으면 광이다. 말씀을 받는 사람이 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손들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선택을 받은 이 시대의 사람인가가 문제이다. 쉽지 않은 질문인데, 여기에 답 나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 응답에 너무나 중요하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적어도 내 인생을 정복할 만한 권세와 응답 받으려면 이거 답 나와야 한다. 물론 내 경험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경은 거의 이렇게 이야기 한다. 누구다 라는 답이 있다. 이거 없이 그냥 따라가면 그냥 따라가는 것이다. 언약이 없다는 말인데, 시간 낭비이다. 그런데 누구일까? 그 메시지가 성경적이면 된다. 그러면 성경을 좀 알아야 할 것이다. 내가 복음 운동을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분에게 말은 안했다. 속으로 성경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일까? 개인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준이 성경이라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정통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증거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 길게 말할 것 없이, 복음이 성경적이면 되고 전도가 성경적이면 된다. 복음은 하나님의 근본 소원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실제 소원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준은 성경이다. 전도도 그냥 전도가 아니고, 성경적 전도이다. 앞에서 예를 든 모든 시대적인 인물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이다. 내 생각이다. 우리가 따라가는 메시지는 아주 성경적이다. 복음과 전도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현장적으로, 영적으로 설명된 적이 나에게는 없었다. 내가 알기로는 교회사에는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인정한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가?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 복음과 전도를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일단 한국에는 없다. 그리고 미국에 있겠는가? 영어를 잘 몰라서 잘 모르겠다. 아니면 중국에 있겠는가? 아니면 중동에 있겠는가? 남미의 어느 나라에 있겠는가? 결론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거는 것이다. 그리고 인생을 다 던지는 것이다. 그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먼저 확인해야 한다. 따라갈 이유 있는 것이다. 맞다 싶으면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맞다고 생각되면 앞뒤를 돌아보면 안된다. 내가 이등이 되든 삼등이 되든 꼴찌가 되든 따라가야 한다. 성경에 바나바와 비슷한 인물 하나 더 있다. 아볼로이다. 목사였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 그리스도 몰랐다는 것이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통해 복음 받았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와서 고맙다고라도 한마디 해야 하고, 그 아래에서 훈련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안왔다. 왜냐면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바울과 아볼로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었지 아볼로가 아니었다. 아볼로는 바울이 따라가야 할 사람이었다. 만일 거기서 이인자 같은 역할을 했으면 수많은 바울의 전도현장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겠는가? 바나바와 똑같이 역사의 흐름에서 사라졌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의 흐름이 분명하다면 인생을 던져야 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니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의 인생을 저주에서 던지겠다. 너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저주에서 건진다. 너는 노력해도 안된다. 뱀의 머리를 내가 대신 깨주겠다. 내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너에게 주는 바리새인의 짐은 무겁다. 믿어야 하고 언약 잡아야 한다. 안 믿어지면 기도해야 한다. 믿어질때까지 해야 한다. 언약 될 때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깊이 생각하고 언약 잡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내 기도 응답과 너무나 관계가 많다는 것이다. 복음 알기 전에는 무조건 기도했다. 언약을 알고 난 후에는 언약을 잡기 시작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잡고 큰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있기 바란다.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시간 낭비 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 바란다. 축복이 있기 바란다.